

녹색성장과 중소기업(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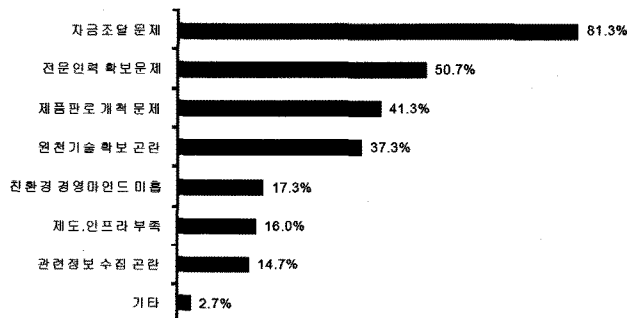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와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정보·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녹색성장 방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3. 녹색성장 중소기업의 실태 분석

◎ 녹색성장관련 중소기업의 애로 및 요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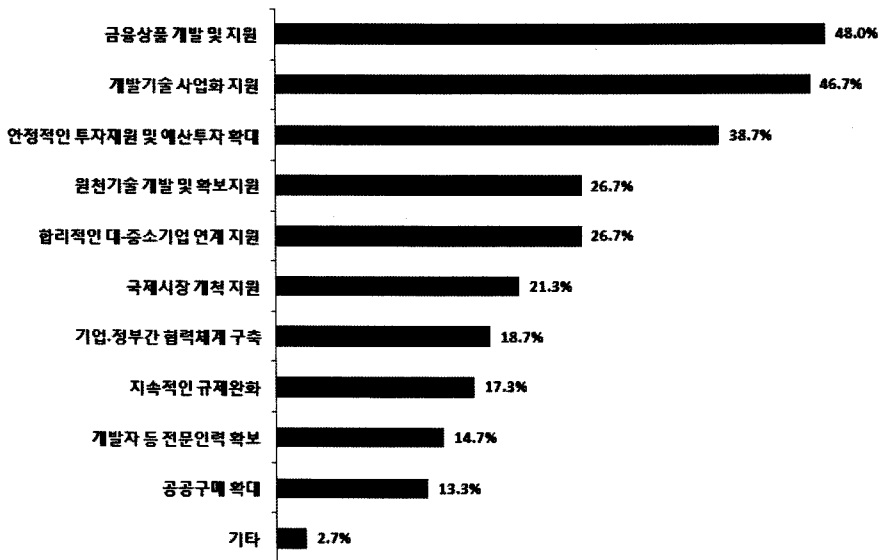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81.3%)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
- 그 다음으로 '전문인력 확보문제' (50.7%), '제품판로 개척문제' (41.3%), '원천기술 확보' (37.3%) 등의 순

< 녹색성장과 관련해 겪고 있는 애로 사항(복수응답) >



-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참여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금융상품 개발 및 지원’ (48.0%)
- 그 다음으로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46.7%), ‘안정적인 투자재원 및 예산투자 확대’ (38.7%),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지원’ (26.7%) 등의 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참여 확대를 위한 요청사항(복수응답)〉



4.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정책

◎ 미국

- 오바마 당선자: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온실가스 배출량 : 2020년까지 90년수준, 2050년까지 90년대비 80% 감축 계획
 - 에너지 소비 : 2020년까지 10% 절감
- 그린에너지를 신성장 동력화
- 그린에너지 사용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 확대 : 10%('12년) → 25%('25년)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 분야 공약 주요내용〉

- 석유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강화
 - 자동차 연비기준을 연평균 4%씩 강화, 18년 이내에 연비를 2배로 개선
 - 20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 국가 저탄소연료기준 설정
- 그린에너지산업시장 창출과 고용확대
 -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500만개 창출
 -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그린에너지산업에 투자

■ 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 확대

- '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의 RFS(Renewable Fuel Standard) 의무화
 - 2022년까지 에탄올 사용을 현재의 7배인 360억 갤런으로 증대 추진
-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발전으로 통해 공급

■ 에너지 효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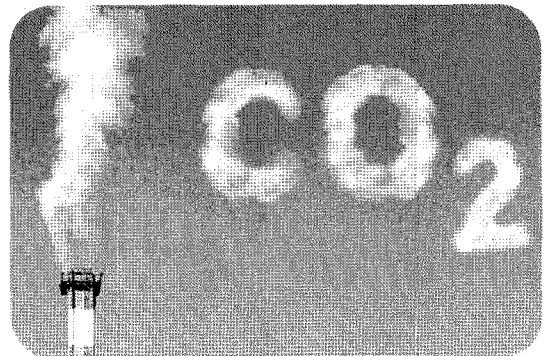
- 2020년까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10% 절감 목표 제시
-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연비 40% 증대('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
 - 정부는 자동차업체의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교체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 금융 제공

■ 에너지 기술개발 등

- 수소연료 전지 개발에 향후 3년간 1.7억달러 투자(에너지부)
- 석탄을 가스화하여 수소·전기를 생산하고 CO₂는 연구분리·저장하는 청정 석탄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

- 미 상원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8 기후안보법을 상징('07.6)하였으나 통과에는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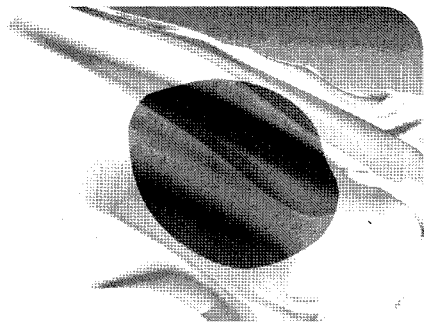


- 하원 에너지 상임위에서 '08.10월 상기내용 관련 법안 초안을 회람한 바, '09년 중 기후변화 법안 논의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
 - 05년 대비 2020년까지 6%, 2030년까지 44%, 2050년까지 80% 감축 추진
- 미동북부 10개주에서 미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경매 실시('08.9)

◎ 일본

■ 일본은 2007년 이후 저탄소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련 강화

- 「Cool Earth」('07.5), 「Clean Asia Initiative」('08.6) 「후쿠다 비전」('08.6) 등이 저탄소사회를 향한 대표적 비전
 - 후쿠다 비전으로 일본은 CO2를 2020년까지 현재 대비 14% 감축, 2050년까지 60~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추진
 - 태양전지·축전지·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산업을 미래 일본 핵심 산업화
 - 태양전지(세계생산점유율 40%), 축전지(세계시장점유율 60%), 연료전지(관련특허 1위)
 - ⇒ 태양광발전,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차

■ 녹색산업 관련 차세대 R&D투자와 산업화를 지원

- NEDO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R&D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성 평가
 - ※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일본경제산업성 산하 조직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며 녹색산업 관련 차세대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

■ 온실가스배출 감축관련 사회·제도적 시스템 구축

- '08. 10월부터 일본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 강제 참가형 배출권 거래제도는 할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은 데다, 기업활동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유 참가형 제도로 운용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
- 탄소배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식품, 의류 등의 최종 소비재에 CO₂ 배출량 표시제를 실시

-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足跡(Carbon Footpoint)제도' 실시

〈 탄소 足跡(Carbon Footpoint)제도 〉

- 식품, 의류 등을 제조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
 - 배출량은 원재료 조달, 제조, 유통·판매, 사용, 폐기·리사이클 5단계에서 산정된 수치를 합산
 - 각 상품별로 통일된 표기(예, 맥주 1병당 CO₂ 배출량 150그램 등)
- 대형 슈퍼와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09. 4월부터 시행
 - 표기 여부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표기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검증

- 연료전지자동차 본격 도입을 위한 로드맵 구축
 - '08.7월 연료전지실용화추진협의회는 2015년 연료전지자동차의 일반 보급을 전제로 한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

■ '환경대응' 을 핵심으로 한 지영경제 활성화

- '환경모델 도시' 구상 추진 및 환경의식 제고운동 전개
 - 차세대 자동차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촉진
 - ECO버스 운행 : 폐식용유 제공 시민에 포인트 발급 폐식용유 정제 연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도입하고, 포인트 소지자는 동 버스를 이용

■ 일본기업의 환경분야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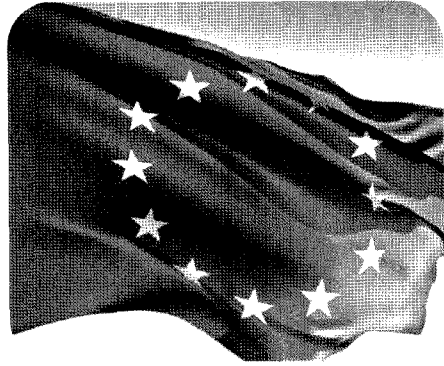
- 아시아국가로 환경설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문가 파견, 인력연수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을 지원
 - 특히, 친환경제품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환경설비 및 친환경 제품 등의 아시아시장 진출 확대 기회

◎ EU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06~08년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나타남
 - 신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일자리 및 성장을 촉진하며, 에너지원 수입에서의

EU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유럽의 전략' ('06.3),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활동 계획' ('06.6), '유럽을 위한 에너지 정책' ('07.1) 등



- 유럽집행위원회는 '07년 의회의 주요 에너지와 기후정책 결정을 기반으로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 을 발표('08.1)

- 배출권 거래제도의 확장과 회원국간의 의무할당제 재구성, 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하지 않았던 회원국별 할당량 마련,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관련 법, 탄소포집 및 저장, 환경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정 등을 포함

■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에너지 효율: 2020년까지 20% 향상
- 온스가스 배출량: '20년까지 90년 대비 20%, '50년까지 60~80% 감축

■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 장악

-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기업의 진출 봉쇄
- EU공동 기술개발 관련 「신· 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가속화

■ 글로벌 녹색시장 진출을 위해 유망 상품과 서비스 개발

- 신상품· 서비스시장 창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형서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자동차업계의 경우 클린디젤 및 디젤 하이브리드차 시장 확대에 주력
 -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 하이브리드차 출시

- EU정부는 “수소연료전지 공동개발사업”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사업에 71억 유로('03~2015년) 진원계획

■ EU집행위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을 선도 시장으로 선정하고, 육성전략 발표('08.1)

- e헬스, 산업용섬유, 지속가능한 건설, 바이오제품, 자원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등

▶ 다음호에 계속